

# Daily Auto Check

2020. 5. 18(Mon)



##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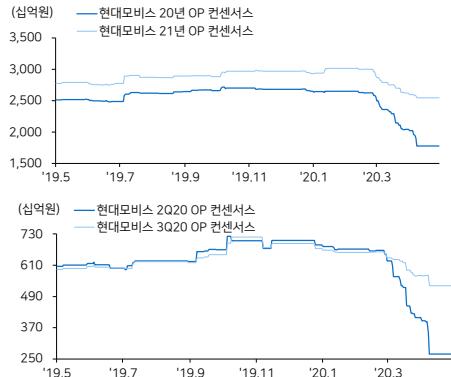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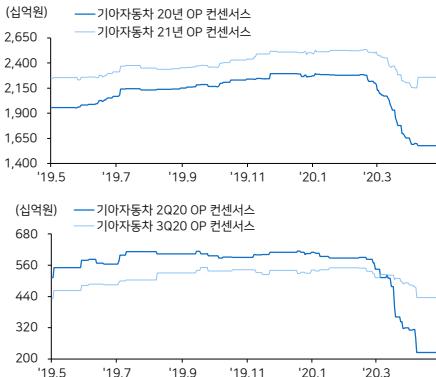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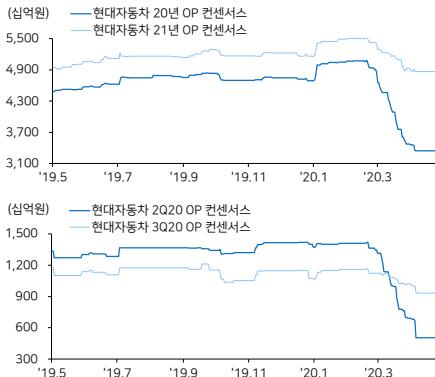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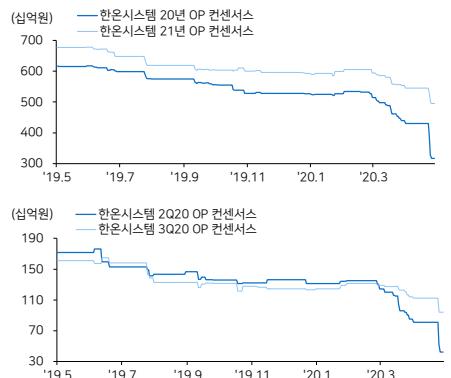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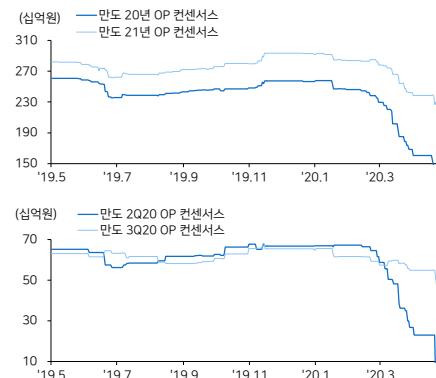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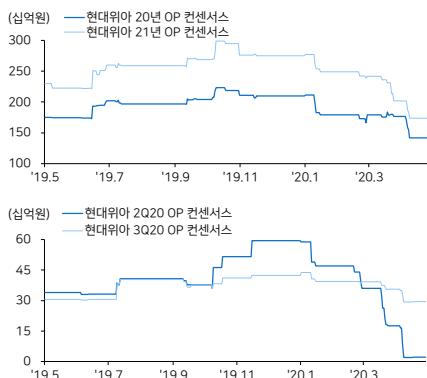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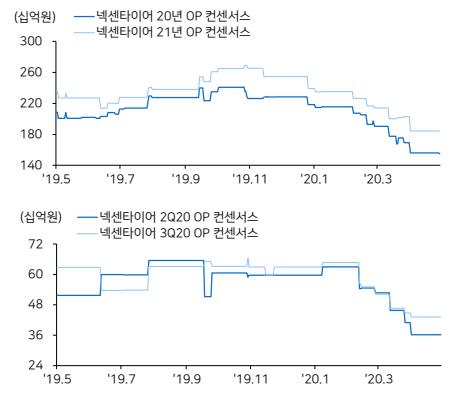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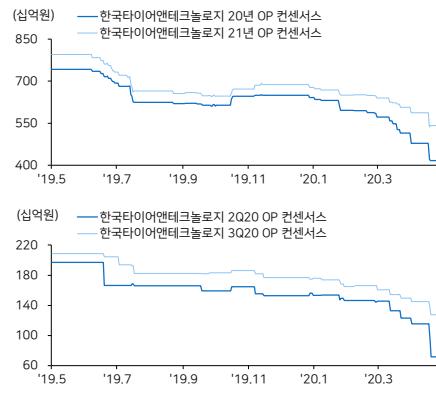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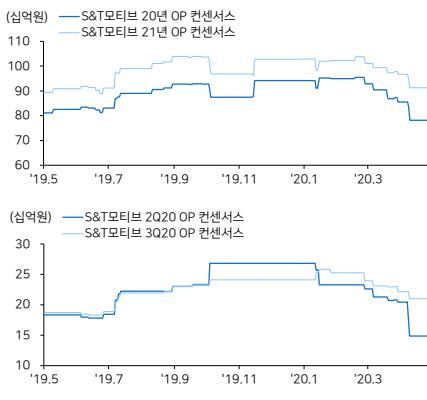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amp;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기아차 내년부터 신차 절벽…차종 줄이고 전동화로 대응 (이투데이)

현대·기아차가 내년부터 시작될 '신차 기준'에 대비해 제품군을 축소·사실상 '모델 노후화' 초기에 진입하는 만큼, 돈이 되는 차만 남기고 단종하겠다는 전략. 나아가 영업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전동화 작업의 '조기 추진'도 검토 중.

<https://bit.ly/2XbmUN8>

## 현대·기아차 '카페이' 무한 확장 플랫폼 전략 (한국금융)

현대차와 기아차가 카네비디드카 시스템을 활용한 차량 간편결제 시스템 '카페이'를 통해 사업영역 확장을 준비 중.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도약하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

<https://bit.ly/2z67CN2>

## 자동차 국외공장 속속 문 열지만…1교대 '부분 가동' (한겨레)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유럽·미국 등지의 해외 자동차 생산공장들이 대부분 재가동에 들어감. 그러나 판매·수출이 살아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편이라困境에 정상조업은 어려워지 않고 있음.

<https://bit.ly/2TfvWmo>

## 멕시코 애재에 美 자동차산업 생산 재개 '빨간불' (뉴스1)

멕시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으로 멈춰선 자동차 등 필수 제조업의 재가동 시점을 오는 18일에서 다음달 1일로 2주 연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자동차업계에 빨간불이 켜짐.

<https://bit.ly/2LCayGK>

## 쌍용차 감사 의견 '거절'…'상장 폐지 가능성' (전자신문)

쌍용차가 지난 15일 공시한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삼정KPMG는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 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다. 쌍용차는 1분기 영업손실 986억원과 당기 순손실 1935억원을 기록.

<https://bit.ly/3cl249U>

## 中 시장 회복하는데 후진하는 현대차… '품질'이 변수 (서울경제)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중국 자동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의 실적은 시원찮음. 품질 이슈가 현대·기아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https://bit.ly/2WHOgsl>

## 자동차 공장 가동률 60%까지 둑... 차 부품사 절반은 이미 가동 중단 (파이낸셜뉴스)

국내 원성차들의 공장 가동률은 60%까지 떨어진 가운데 2차 협력사의 생산차질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수출량 감소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일부 원성차 국내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감소했다고 밝힘.

<https://bit.ly/3g0dIhY>

## 다시 문연 테슬라 공장 가동에 주문 밀려 24시간 풀가동 (매일경제)

테슬라 미국 공장은 고대근무를 통해 24시간 제제로 풀가동 중.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셧다운 조치를 풀고 이제 가동을 시작. 미국 50개주 가운데 32개주가 16일(현지시간) 현재 경제활동 정상화에 착수.

<https://bit.ly/3d5d6lH>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침에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